

1,088명, 2024년 전국 5.1 로동메달 수상

연변과원신에너지과학기술유한회사 리강 전국 5.1 로동메달 수여받아

일전, 2024년 '5.1'국제로동절 및 전국 5.1 로동메달·전국로동자선봉호 표창대회가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되었다. 대회에서는 255개의 전국 5.1 로동상장, 1,088개의 전국 5.1 로동메달을 수여하고 1,034개의 전국로동자선봉호를 표창했다.

올해 로동절 표창은 중국공산당 제 20차 전국대표대회 정신과 전국 광회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신질생산력에 중시를 돌리고 표창대상을 선발, 추천했다. 그중 일반표창 대상에서 상장의 48.6%, 메달의 33.7%, 선봉호의 35.5%가 신질생산력 발전의 대상에 속한다.

일반표창 대상에서 산업로동자는 380명으로 규정한 비율보다 5.3% 높은 40.3%를 차지했다. 농민공은 산업로동자의 주체가 되었는데 올해 표창을 받은 농민공은 도합 172명으로 18.2%를 차지하여 그 비중이 재차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타 일선 종업원 및 전문기술인력은 236명으로 규정한 비율보다 5.0% 높은 25%를 차지하고 과학 및 교육 인력은 206명으로 규정한 비율보다 1.9% 높은 21.9%를 차지했다. 각 단위는 또한 화물차 운전자, 택배 운전자, 배달원과 같은 새로운 취업형태의 로동자를 적극적으로 추천했는데 표창 대상의 4.1%를 차지하며 신흥 군체들을 위해 본보기를 수신했다.

일반표창 대상은 제조업, 전력, 가스, 건축업, 교통운수, 정보전송, 소



프트웨어및정보기술서비스 산업과 같은 관련 업종을 포함하여 19개 업종 범주를 포괄한다.

메달 대상은 19개 민족을 포괄하며 소수민족이 76명으로 8.1%를 차지했다. 중국공산당원은 685명으로 72.6%를 차지하고 민주당파 35명,

무소속인사 25명이다. 여성은 209명으로 22.2%를 차지했다.

표창을 받은 상장단위 및 선봉호집단중 기업은 979개로 83.4%를 차지하며 당정기관, 사업단위와 사회단체는 190개로 16.2%를 차지했다. 상장, 메달 및 선봉호의 비공유제기

업 비율은 각각 44.0%, 39.0%, 40.3%로 규정한 비율보다 9.0%, 4.0%, 5.3% 높았다.

연변에서는 연변과원신에너지과학기술유한회사 압출작업장 압출라인반장 리강이 전국 5.1 로동메달을 수여받았다.

/ 인민넷-조문판

식수조림으로 생태장벽 튼튼히 구축

지난해 연변 3529.56헥타르에 조림

지난해 연길시에서는 14개의 유원지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그중 별빛만 유원지, 와룡유원지, 명신유원지, 민속유원지, 대우유원지, 단청유원지, 박학유원지, 문산유원지, 향양유원지, 단연유원지, 가정주제유원지 등 11개 유원지가 이미 사용에 투입되었다.

통정시에서는 근 2만 3,000 무에 달하는 벌채지 갱신, 봉산육림 6만무를 완수하고 의무식수기지 2곳을 새로 선정해 1만여그루의 나무를 심었으며 261 무에 달하는 광산 주변에 대해 복화를 실시했다.

왕청현에서는 국토 복화를 다그치고 지난 한해에만 묘목 48만 8,000 그루를 심어 434헥타르에 조림하고 2,102 그루의 묘목을 심어 7개 촌에서 복화작업을 펼쳤다.

안도현에서는 도합 336만원을 투입해 토월산, 영월산, 경산로 등에 각종

묘목 2,339 그루와 4,250 여그루의 묘목을 심었으며 태달광장, 전람성광장, 고속도로 동쪽 출구 등 구역에 28만 여송이의 꽃을 재배했다.

2022년 이래 훈춘시 집체림구는 8.6만그루에 달하는 식수와 3.1만그루의 육성, 보호를 완수하고 훈춘림업유한회사는 약 5,973헥타르에 달하는 식수조림을 완수하고 약 1만 1,946헥타르에 달하는 유아림 육성 임무를 수행했다.

올해는 우리 나라에서 식수절을 내온 지 45년이 되는 해이다. 4월에 들어서면서 날씨가 따스해지고 간간이 내리는 비로 인해 토양이 습윤해지기 시작하자 각 지역에서는 간부와 대중들이 적극적으로 식수조림에 나섰다.

연변 립업초원부문에서는 '목수청산은 곧 금산은산'이라는 리념을 확고

히 수립하고 실천하며 다년간 국토 복화사업을 과학적으로 전개했다. 이로써 산림, 초원의 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질과 기능이 꾸준히 향상되었으며 도시와 농촌의 녹화미화 수준이 크게 제고되어 생태환경이 더욱 아름다워졌다.

특히 지난해 연변에서는 생태복원을 주선으로 국토공간의 녹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연변의 녹색생태장벽을 견고하게 구축했다. 지난해 3529.56헥타르에 달하는 조림작업을 완수했는데 이는 '세번째 10년 복화, 길림대지 미화 행동'의 120.93%를 수행한 셈이다. 또한 현금 급 및 이하 도로에 대한 복화 19.8킬로메터를 완수하고 도시에서 추가로 건설, 보완한 녹지의 실제 면적은 48헥타르에 달하며 이는 계획의 177.8%를 수행한 셈이다. 농촌 '녹화미화행동'을 55차례 진행하여 32.42헥타르의 녹지를 추가로 건설, 보완했는데 이는 연간 계

획의 105%를 수행한 셈이다. 또한 <2023년 연변 조림복화 활동월 실시방안> 요구를 적극 시달해 '주, 현(시) 급 지도자 식수', '업종부문 녹화', '연길녹화미화', '전민의무식수' 등 네가지 활동을 조직하고 의무식수기지 14곳을 구축하였는데 총면적은 25.59헥타르에 달한다. 연인수로 9.8만명이 의무식수를 통해 25.3만그루의 나무를 심었는데 식수면적은 37헥타르에 달한다.

주림업초원국에 따르면 올해에는 국가와 성에서 하달한 조림계획에 따라 생태복원 사업을 기반으로 조림복화 공사를 앞선 들어 계획하고 년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연풍도 국토복화 시범대상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마을 주변, 도로 양측, 폐광산 등 잠재적 조림공간을 최대한 잘 활용해 인공조림 및 퇴화림복원 방식으로 12.3만무의 립지를 조성한다.

/ 연변일보

‘직업병 예방치료법’ 선전활동 가동

지난 29일, 연변조선족자치주위생건강위원회, 주민정국, 주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 등 단위에서는 련합으로 연길시 조양천진에 위치한 연변통천포장기계유한회사를 찾아 올해 연변 '직업병 예방치료법' 선전주간 활동가동식을 가졌다. 올해 4월 25일—5월 1일은 스물두번째 전국 '직업병 예방치료법' 선전주간이며 선전 주제는 '예방을 위주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직업 건강을 지키자'이다.

가동식에서 주위생건강위원회 관련 책임자는 각급, 각 부문 및 기업에서 직업병 예방치료 사업에 높은 중시를 돌릴 것을 요구했다. 특히 직업병에 대한 예방치료는 '건강 연변' 건설의 중요한 내용이자 광범한 로동자들의 심신건강, 행복한 생활과 밀접히 관련되는 민생공사인 만큼 여러 기업, 사회구역, 농촌, 가정, 공공장소 등에서 직업 건강지식 선전교양을 활발히 전개하고 로동자들의 법률의식을 높이며 '건강의 제1책임자는 본인'이라는 리념을 수립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여러가지 직업병 예방치료 조



의료일군이 한 직원의 혈압을 측정해주고 있다

치를 착실히 강구하고 원천적 처리를 강화하며 로동자들을 위한 직업 특성별 건강검진을 전개하고 직업병 위험요소 검측, 직업 위험 평가 검사를 실시하며 직업병 환자와 그 가족들이 치

료나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지하고 방조할 것을 요구했다.

료해에 따르면 최근년간 연변의 직업병 예방치료 사업은 많은 진보를 가져왔다. 직업병 위험 종족 신청률이

해마다 제고되고 직업병 위험 전문진리 기업 합격률은 98.6%에 달했으며 직업병 예방치료 종목에 대한 시달 및 검측 범위가 확대되었는데 전 주 8개현, 시의 검측 피복률이 100%에 달했다.

직업병 검측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동반되었는데 주질병예방통제중심 실험실 검측 능력 제고 대상이 완수되고 여러 현, 시에 직업건강검측기구를 마련했다. 연변조이병원에 직업병 진단기구를 세우고 훈춘시 신안사회구역위생봉사중심에 진폐병회복소를 건설했다. 연변의 직업병 발병률은 해마다 하락하고 진폐병 발병률은 3년 연속 증가되지 않았다.

가동식에 이어 연변조이병원, 연길시질병예방통제중심, 조양천진중심위생원 의료간호일군들이 통천포장기계유한회사의 80여명 로동자들에게 직업병 예방치료 지식을 설명하고 건강상식 자료들을 나눠줬으며 혈액 측정 및 건강 자문 등 봉사를 제공했다.

/ 연변일보

동북아려객운수역 승급 개조, 6월 10일 사용 교부



일전, 실내의 개조 대상의 건설 진척을 료해하고자 찾은 동북아려객운수집단 연길중심패스역의 시공 현장에는 보호망이 설치되어있고 역내 1, 2층의 대기석, 검표 통로, 설비들을 전부 철거하고 시공일군들이 한창 시공에 바빠 움직이고 있었다.

료해에 따르면 시장과 운수, 관광, 우편 전환의 승급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올해 3월초에 연길시교통운수국은 동북아려객운수집단 연길중심패스역에 대한 개조를 전면적으로 가동했다. 현재, 동북아려객운수집단 연길중심패스역 내부에 대한 철거, 이전이 전부 완성되고 주체 개조단계에 진입했으며 6월 10일에 전부 준공, 사용에 교부된다.

동북아려객운수집단 연길중심패스역은 1992년에 건설되고 교통부로부터 1급 려객운수역으로 확정되어 주로 성간, 지역간 운수와 연변내 장거리 려객운수 로선 및 연길·로씨야 등 국제운수 로선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최근년간 자가용 관광의 활성화와 고속철도의 개통으로 도로려객운수가 불경기에 처했다.

이런 현실에 대비해 적자를 미봉하고 단거리 려객운수역의 경영 모식을 타파하며 경제사회발전과 인민대중의 출행에 더욱 잘 봉사하기 위해 성정부와 주정부는 선후로 <도로려객운수역 고품질 전환발전 실시방안>을 출범하고 방안 내용에 따라 전환, 승급 사업을 전개했다.

이 대상의 계획투자액은 450만원이고 시공 면적은 3,800평방메터이며 주로 두개 방면의 개조 대상을 포함한다. 첫째, 운수역 려객 흐름 상

황과 건축 특점에 따라 대합실을 새롭게 배치, 개조하고 봉사시설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자원 리용률을 제고하여 대합실을 편리한 출행봉사 네트워크로 승급, 개조한다. 둘째, 자원을 개발하고 민속특색을 융합하여 려객운수, 화물운수, 문화관광, 음식, 전시 등 여러 경영방식을 일체화한 상업복합체로 승급시킨다.

동시에 로화된 배관을 교체하고 소방시스템과 전기기구를 보완하며 벽을 철거하고 창문을 넓히며 주차장을 새로 부설하는 등 기반시설을 승격하는 외에 전반적인 구도를 새롭게 배치해 기능구역, 물류배달구역, 관광집산구역, 상업봉사구역, 중업원의집구역 등 5개 구역을 건설한다.

관련 책임자는 이번 려객운수역의 승급은 선명하고 아름다운 조선족 요소와 가옥 속의 가옥(屋中屋) 설계 리념을 채택하여 매표, 검표, 안전검사, 대기, 중점려객휴게실, 모자실, 사무실, 택배, 화장실 등 중심패스역의 기본적인 기능과 려행사, 자동차 임대, 운전학교 등 전체 기능의 승급, 개선을 실현했다. 동시에 넓직한 택배물류창고 분류중심을 업그레이드시키고 물류, 우정, 택배 등이 일체화된 종합적인 봉사를 제공하며 주차장, 전동차 충전소 등 다양한 봉사 플랫폼을 설치하여 전통적인 중심패스역의 행상을 타파하고 문명창구를 창조하여 길림성에서 인지도가 높고 생동감이 있으며 생생한 려객운수역의 브랜드 이미지를 창설하게 된다.

/ 리전기자

길림성사회구역로년대학 향촌학당 도문서 현판



향촌 로인들에게 적합한 수업 개설

길림성 첫 사회구역로년대학 향촌학당이 최근 도문시 석현진 상룡성촌에서 현판됐다.

길림성사회구역로년대학은 2020년 10월에 건교한 이래 사회각계와 긴밀히 합작하여 로년봉사 전략련맹을 설립하며 문화양로봉사 사업의 발전에 조력했다.

현재 길림성사회구역로년대학에는 2개 분교, 72개 사회구역학당과 8개 합작학당이 있으며 '학습, 건강, 관광, 오락, 유익'의 다원화 수요를 둘러싸고 100여개의 수업을 설계하여 피복면이 넓은 로년교양망을 구

축했다.

길림성사회구역로년대학에서 상룡성촌에 설립한 향촌사회구역학당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부하는 교수 방식을 취하고 향촌 로인들에게 적합한 수업을 설치하며 로년학원의 특점과 수요에 결부하고 실용성, 취미성에 중시를 돌리면서 정신문화 수요가 있는 당지 로인들에게 량질의 학습환경과 높은 자원의 학습체험을 제공하고 로인군체들이 가까이에서 학교에 다니는 데 편리를 제공하는, 집앞의 로년대학으로 건설하게 된다.

한편, 향촌학당 현판과 더불어 길림성사회구역로년대학은 상룡성촌학당에 1만원의 장학금과 도서를 기증했다.

/ 길림일보